

역학 II (건강행태/보건지표)				번호: II - 1 - 1	
제 목	국문	중학교 3학년 청소년들의 건강행태 조사			
	영문	Youth Health Related Behaviors: The 9th Grade Students in the Middle School			
저 자 및 소 속	국문	이명순 ¹⁾ , 김장락 ²⁾ , 황영신 ¹⁾ 1)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, 2)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			
	영문	Myoung-Soon Lee ¹⁾ , Jang-Rak Kim ²⁾ , Young-Shin Hwang ¹⁾ 1)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, School of Medicine, SungKyunKwan University, 2)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Collage of Medicine,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			
분 야	역 학 기타	발 표 자	이명순	발표형식	구 연
			일반회원		
진행상황	연구완료				
<p>1. 연구목적</p> <p>최근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흡연, 음주, 기타 약물 남용 및 조기 성 경험 등 청소년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험행태가 증가하고 있고, 그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.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이러한 청소년 건강위험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, 청소년 시기 및 청소년 건강위험행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지 못하였다.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건강위험행태 전반에 걸친 행태율을 조사해서 청소년 건강위험행태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.</p> <p>2. 연구방법</p> <p>1) 조사 대상 집단</p> <p>조사대상집단은 남, 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, 표본추출은 거주 지역 및 학교유형 (남학교, 여학교, 남녀공학), 기대 건강위험행태율 등을 고려해서 수원시 및 진주시 2개 지역 시별 4개 중학교를 임의 선정함으로써 이루어졌고, 해당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.</p> <p>조사참여자는 중학교 3학년 3,739 명으로, 남학생 1,809명, 여학생 1,930이며, 학교유형별로는 남중 1,233명, 여중 1,360명, 남녀공학 1,146명이었다. 지역별로는 수원지역이 2,043명, 진주지역이 1,686명이었다.</p> <p>2)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개발</p> <p>조사의 관심대상 건강행태는 흡연, 음주, 성관련 경험, 기타 약물사용(흡입제, 불법약물, 살빼는 약, 각성제 등), 우울 및 자살관련 정서적 위험행동, 일탈 행동(가출, 무단결석, 폭력 등) 왕따, 도박성게임 등 건강위험행태와 안전벨트 착용, 체중인식 및 체중조절 등 건강보호행태 등이다. 조사내용은 관심</p>					

건강행태의 경험유무 및 현재 지속유무와 그 정도이다. 조사도구는 기존 조사도구 및 관련문헌을 참조하여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조사 설문서 형태로 개발하였다.

3) 조사자료 수집 및 자료분석

조사 자료는 조사참여학교를 조사원들이 방문하여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, 조사설문서를 반별로 동시에 배부하고 학생들이 직접 응답케 한 후 바로 수거하였다. 자료분석은 건강행태에 관해서는 성별, 학교유형별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행태에 관해서 교차분석을 하였고, 흡연·음주와 다른 건강위험행태와의 관련성 정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비차비(Odds Ratio)로 측정하였다.

3. 연구결과

1) 건강위험행태

- 흡연의 경우, 현재흡연을 (지난 30일 동안 하루이상 흡연)이 남학생은 21.2%, 여학생은 14.3% 이었고 하루 11개피 이상 흡연경우가 남학생 5.4%, 여학생 2.5% 이었다. 반면, 현재 비흡연학생의 향후 흡연의도는 남학생 5.2%, 여학생 1.4%이었다. 현재흡연율의 경우, 지역별차이를 제어해도 남·여 모두 남녀공학 경우가 높았고, 여학생 경우 수원지역이 높아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.

- 음주는 현재 음주율 (지난 30일 동안 하루이상 음주)이 남학생 36.4%, 여학생 30.5%로 남·여간 차이가 적었으며, 남·여 모두 약 9%에서 만취경험이 있었다. 반면, 비음주학생 중 향후 음주의도는 남·여 모두 절반 정도에서 있었다.(남 45.9%, 여 54.4%) 여학생의 경우 현재음주율이 남녀공학에서 여학교보다 높았으며, 음주관련 모든 경험이 수원지역이 진주지역보다 높았다.

- 성관련행태에 대해서는, 남학생 26.3%, 여학생 17.2% 가 이성친구와의 친밀한 행동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있었으며, 성경험은 남학생 4.6%, 여학생 3.3% 이고, 성경험으로 인한 문제로 외부도움을 받은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났다. 여학생의 경우, 성문제관련 고민이 남녀공학에서 여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간 차이가 있었다.

- 정서적 위험행동 (우울경험 및 자살관련)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, 자살계획경험은 남학생 6.2%, 여학생 13.5%, 자살시도경험은 남학생 1.9%, 여학생 5.7% 가 갖고 있었다. 여학생 경우 흡연, 음주, 성경험 등과는 달리, 자살계획경험이 여학교 및 진주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.

- 기타 약물사용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남녀학생 모두 비교적 낮은 평생경험율을 보였는데, 흡입제(가스, 본드, 유기용제 등) 경우는 남학생 1.3%, 여학생 0.7%이며, 대마초 등 마약류 사용은 남학생 0.7%, 여학생 0.2% 이었다. 학교유형 및 지역별 차이는 없었다.

- 일탈행동 경험에 관해서는 남학생 경우, 가출등 반사회적 행동 9.7%, 무단결석 4.0%, 폭력가함 14.1% 이었고, 여학생 경우는 반사회적 행동 10.0%, 무단결석 5.0%, 폭력가함 5.9% 이었다. 왕따관련 경험은 남학생 18.8%, 여학생은 25.5% 가 왕따 시킨 경험이 있었다. 한편, 도박성게임경험은 남학생 23.5%, 여학생 8.8%가 보고하였다. 반사회적 경험과 왕따관련 경험이 수원지역에서 높아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.

- 체중에 관한 주관적 인식에서는 여학생 경우 47.5%가 자신의 체중을 과체중으로 남학생은 34.6%가 저체중으로 인식하고 있었고, 한편, 남학생은 44.4%가 여학생은 64.8%가 체중조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.

- 안전벨트 착용 (항상착용율)은 남·여 학생 모두 낮게 나타났다. 승용차를 탔을 경우 남학생이 32.1%, 여학생이 23.1% 착용하는 반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승차시에는 남학생이 6.3%, 여학생이

4.6%로 매우 낮게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2) 흡연, 음주와 다른 건강위험행태간의 상호관련성

흡연, 음주의 유무가 다른 건강위험행태 (일탈행동, 기타 약물복용, 자살시도, 성경험 등)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비차비(OR)를 산출하였다. 흡연이나 음주를 할 경우 다른 건강위험행태율도 높게 나왔는데, 특히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할 경우에는 음주나 흡연만 하는 경우에 비해 다른 건강위험행태 전반에 걸쳐 상승적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. 예를 들면, 성경험의 경우 음주, 흡연 둘 다 안하는 경우에 비해 음주만 하는 경우 비차비가 4.5(95% CI: 2.431-8.352), 흡연만 하는 경우에 7.9(95% CI: 3.251-19.412), 흡연과 음주 모두 할 경우 28.1(95% CI: 16.831-47.076) 이었다.

4. 고찰

첫째, 본 연구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위험행태율이 다른 국내 연구결과에 비해서 기타약물복용을 제외한 다른 건강위험행태 전반에 걸쳐서 높게 나타났다. 본 조사가 지역수준에 국한한다는 제약점은 있으나 그 동안 청소년들의 건강위험행태율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. 향후 이러한 행태관련 조사결과들이 청소년들의 건강위험행태 변화추이 관찰과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프로그램개발, 평가 등에 기본자료로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건강행태율에 관한 용어정의 및 건강행태 조사실시방법 등에 관한 통일된 지침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. 둘째,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 위험행동을 제외하고는 여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건강위험행태율을 보인 반면, 음주관련 경험이 나 음주의도 등에서는 남·여학생간에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음주에 관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본다. 한편, 여학생의 경우 학교유형별 및 지역에 따라 건강위험행태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여학생이 주위 분위기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영향받는 것으로 보인다. 셋째, 청소년 건강위험행태율이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. 수원지역이 정서적 행동관련 경험(우울 및 자살관련)을 제외하고는 진주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의 규범 및 분위기, 문화가 청소년 건강위험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. 넷째, 청소년이 음주 및 흡연을 하는 경우 다른 건강위험행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흡연 및 음주가 청소년들을 다른 건강위험행태로 이끄는 길목의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부합한다. 결론적으로 본 조사 결과는 청소년 집단이라도 대상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지역에 따라 건강위험행태율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, 청소년 건강위험행태 예방을 위해서는 이같은 건강행태율 조사를 근거로 각 대상집단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. 또한 음주 및 흡연의 다른 건강위험행태와의 강한 관련성을 볼 때, 건강위험행태에 대한 개별적 접근보다는 건강행태전반에 걸쳐서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